

2022.10.3

결혼 생활에 점점 익숙해져가는 시기이다

남편은 처음에는 잘나가고 멋있고 자상한 사람이었다.

나에게만 잘해주는

사람인줄 알았다. 그러나 점점 갈수록 화를 내고 반겨도

항상 무시하였다.

내가 뭘 잘못 했을까? 이런 생각이 든다.

2022.12.19

회사일로 남편이 더욱 바빠져서 화가 더 커졌다.

작은 것에 다투다가 이제는 더욱 커져서 폭력을 휘두르기  
시작했다.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한 건 아닌데 대  
꾸할 수 가 없을 정도였다.

2023.2.20

아침에 병원에 갔다 왔다. 다리가 골절되었다.

매일 일당적으로 당하고 맞는 게 지긋지긋하다.

여기서 벗어나고 싶다...

2023.4.15

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.

남편이 회사 가는 동안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.

남편이 아예 없어졌음 좋겠다.

그러면 이 병신같은 생활에서 탈출할 수 있을텐데..